제3장 |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썩	어찌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북
움찔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이 조항에서 ‘한 단어’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예시하고 있는 단어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모두 하나의 형태소 내부이다. 따라서 복합어인 ‘눈곱[눈꼽], 발바닥[발빠닥], 잠자리[잠짜리]’와 같은 표

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한 형태소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새의 울음을 나타내는 형태소 '소쩍'은 '솟적'으로 적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솟'과 '적'이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깨　　오빠　　새끼　　토끼　　가꾸다　　기쁘다　　아끼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의 '어깨, 오빠, 새끼, 토끼, 가꾸다, 기쁘다, 아끼다'를 '엇개, 옵바, 샛기, 톳기, 갓구다, 깃브다, 앗기다'로 적을 근거는 없다.

2. 또한 한 형태소에서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소리대로 적는다. 받침 'ㄴ, ㄹ, ㅁ, ㅇ'은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꾸어 주는 필연적인 조건이 아니다.

건들　　번개　　딸기　　절벙　　듬성(하다)　　함지　　껑둥(하다)　　뭉실

따라서 'ㄴ, ㄹ, ㅁ, ㅇ' 뒤에 오는 된소리는 특별한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건뜻　　번쩍　　딸꾹　　절뚝(거리다)　　듬뿍　　함빡　　껑뚱(하다)　　뭉뚱(그리다)

그렇지만 'ㄱ,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언제나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늑대[늑때]　　낙지[낙찌]　　접시[접씨]　　갑자기[갑짜기]

'ㄱ, ㅂ' 받침 외에 '믿고[믿꼬], 잊지[읻찌]'와 '낯설다[낟썰다]'처럼 앞말의 받침이 [ㄷ]으로 발음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예들도 있다. 이러한 말 역시 된소

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데 이는 다른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어간+어미', '어근+어근'과 같이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라서, '눈곱, 발바닥' 등과 마찬가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똑똑하다, 쓱싹쓱싹, 쌉쌀하다'의 '똑똑, 쓱싹, 쌉쌀'처럼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여 같은 글자로 적는다.

더 알아보기

- **형태소(形態素)란?**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국어에서 'ㅂ'이나 'ㅣ' 등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태소가 될 수 없지만 '비'가 되면 뜻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책가방'은 '책'과 '가방'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쪼개지기 때문에 형태소는 '책가방'이 아니라 '책'과 '가방'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진다고 해도 쪼갰을 때 의미가 없어지거나 쪼개기 전의 의미와 관련되는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 '나비'는 '나'와 '비'로 쪼개어지지만 이때 '나'와 '비'는 '나비'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나비'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의미 단위, 즉 형태소가 된다.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맏이	마지	핥이다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걷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닫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從屬的) 관계'란,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솥이[소치]: 솥(실질 형태소)+이(형식 형태소)
묻히다[무치다]: 묻-(실질 형태소)+-히-(형식 형태소)+-다(형식 형태소)

구개음화 현상에서 후행하는 형태소는 반드시 조사,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이어야 한다. 구개음화 현상에 관여하는 형식 형태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 명사 파생 접미사(맏이, 해돋이)
부사 파생 접미사(같이, 굳이)
주격 조사(끝이, 밭이)
서술격 조사(끝이다, 밭이다)
사동 접미사(붙이다)
히: 피동 접미사(걷히다, 닫히다)
사동 접미사(굳히다)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곧이[고지]'는 부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었으므로 구개음화가 실현되었지만, '곧이어'는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 부사가 결합한 말이므로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곧이[고지]: 곧-(어근)+-이(부사 파생 접미사)
곧이어[고디어]: 곧(부사)+이어(부사)

현재 표준어에서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마디, 견디다'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돗자리	엇셈	웃어른	핫옷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 나는 'ㄷ, ㅅ, ㅆ, ㅈ, ㅊ, ㅌ, ㅎ' 등을 말한다. 이 받침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가 난다.

① 형태소가 뒤에 오지 않을 때: 밭[받], 빗[빋], 꽃[꼳]
②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뒤에 올 때: 밭과[받꽈], 젖다[젇따], 꽃병[꼳뼝]
③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뒤에 올 때: 젖어미[저더미]

이 조항에서는 이 가운데 'ㄷ'으로 적을 뚜렷한 까닭이 없는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예시에서 보듯이 이는 다른 자음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밭, 빗, 꽃' 등과 같이 다른 자음으로 적을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ㅌ, ㅈ, ㅊ' 등으로 적지만, '낫, 빗' 등과 같이 'ㄷ'이나 다른 자음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ㅅ'으로 적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ㄷ'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ㄷ'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맏이[마지], 맏아들[마다들]'의 '맏-', '낟[낟:], 낟알[나:달], 낟가리[낟:까리]'의 '낟'처럼 원래부터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ㄷ'으로 적는다. '곧이[고지], 곧장[곧짱]' 등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돋보다(←도두보다), 딛다(←디디다), 얻다가(←어디에다가)'처럼 본말에서 준말이 만들어지면서 'ㄷ' 받침을 갖게 된 경우에도

‘ㄷ’으로 적는다. 셋째,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반짇고리, 사흗날, 숟가락, 이튿날’처럼 ‘ㄹ’ 소리와 연관되어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에도 ‘ㄷ’으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9항 참조)

이처럼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관습대로 ‘ㅅ’으로 적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걸핏하면	그까짓	기껏	놋그릇	덧셈	빗장
삿대	숫접다	자칫	짓밟다	풋고추	햇곡식

제4절 모음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게수	혜택(惠澤)	헤택
사례(謝禮)	사레	계집	게집
연몌(連袂)	연메	핑계	핑게
폐품(廢品)	페품	계시다	게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에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그렇지만 발음이 변화한 것과는 달리 표기는 여전히 ‘ㅖ’로 굳어져 있으므로 ‘ㅖ’로 적는다.

조항에서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라고 한

것이 '례'를 [레]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레]로 발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는 표준 발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 발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계, 몌, 폐, 혜'는 발음의 변화를 따르면 'ㅖ'로 적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ㅖ'의 발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고 철자와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전히 표기를 'ㅖ'로 인식하므로 'ㅖ'로 적는다.

다만, 한자 '偈, 揭, 憩'는 본음이 [게]이므로 'ㅖ'로 적는다. 따라서 '게구(偈句), 게제(偈諦), 게기(揭記), 게방(揭榜), 게양(揭揚), 게재(揭載), 게판(揭板), 게류(憩流), 게식(憩息), 게휴(憩休)' 등도 '게'로 적는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의의(意義)	의이	늬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띄어쓰기	띠어쓰기
무늬[紋]	무니	씌어	씨어
보늬	보니	틔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늴리리	닐리리	유희(遊戱)	유히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ㅢ'의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늴리리[닐리리] 씌어[씨어] 유희[유히]

②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이러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ㅢ'는 'ㅣ'로 적을 수 있고, 특히 자음 뒤에서는 'ㅣ'로 적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표기인 '희망, 주의'를 '히망, 주이'로 적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고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모두 반영할 수도 없으므로 'ㅢ'가 'ㅣ'로 소리 나더라도 'ㅢ'로 적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ㅢ'로 적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① 모음 'ㅡ, ㅣ'가 줄어든 형태이므로 'ㅢ'로 적는 경우: 씌어(←쓰이어), 틔어(←트이어) 등

② 한자어이므로 'ㅢ'로 적는 경우: 의의(意義), 희망(希望), 유희(遊戱) 등

③ 발음과 표기의 전통에 따라 'ㅢ'로 적는 경우: 무늬, 하늬바람, 늴리리, 닁큼 등

더 알아보기

- **'의'의 발음**

'의사의 책임'에서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하고 조사 '의'는 [의]나 [에]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이들은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아니라서 이 조항과는 무관하지만, 모두 '의'로 적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첫음절의 '의'는 발음의 변화가 없으므로 '의'로 적고,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지만 [의]가 원칙이므로 '의'로 적는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긔챠, 일긔'와 같이 언어 현실에서 멀어진 표기를 '기차(汽車), 일기(日氣)'로 적을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희망, 주의'는 [의]로 발음되므로 표기도 'ㅢ'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발음의 변화는 인정하면서 표기는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 **'늬'의 발음과 표기**

'늴리리, 무늬' 등의 '늬'를 '니'로 읽지만 표기는 '늬'로 하는 것을 'ㄴ'의 음가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무늬'의 'ㄴ'은 '어머니'의 'ㄴ'과 음가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늬'로 적는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ㄴ'은 'ㅣ(ㅑ, ㅕ, ㅛ, ㅠ)'와 결합하면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처럼

경구개음(硬口蓋音) [ɲ]으로 발음되지만, '늴리리, 무늬' 등의 '늬'에서는 구개음화하지 않은 'ㄴ', 곧 치경음(齒莖音) [n]으로 발음된다. 이를 고려하여 '늴리리, 무늬' 등에서는 전통적인 표기대로 '늬'로 적는다고 본다.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0항~제12항에서는 국어의 두음 법칙을 규정하였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두음 법칙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이승(尼僧)　　이공(泥工)　　익사(溺死)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한자어 음절이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냥, 냥쭝, 년' 등과 같은 의존 명사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쓰지만 언제나 의존하는 대상과 하나의 단위로 쓰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말들은 독립된 단어로 잘 인식되지 않고, 그 결과 단어의 첫머리에도 '연도, 열반' 등과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십 년　　금 한 냥　　은 두 냥쭝

따라서 '年', '年度'처럼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의 적용에서 차이가 난다. '년, 년도'가 의존 명사라면 '연, 연도'는 명사이다.

연 강수량(명사)　　일 년(의존 명사)
생산 연도(명사)　　2018 년도(의존 명사)

[붙임 1]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소녀(少女)	만년(晩年)	배뇨(排尿)
비구니(比丘尼)	운니(雲泥)	탐닉(耽溺)

[붙임 2]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이미 두음 법칙이 적용된 자립적인 명사 '여성, 염불'에 '신-, 구-, 공-'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로 적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라고 한 것은 '신(新), 구(舊)'와 같은 한자를 접두사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구(舊)'는 '구 시민 회관'과 같은 구성에서는 관형사로도 쓰인다. '남존-여비, 남부-여대' 등은 엄밀히 말하면 합성어는 아니지만, '남존', '여비', '남부', '여대' 등이 마치 단어와 같이 인식되어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굳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년도, 구년도' 등은 발음이 [신년도], [구:년도]이며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한국 여자 농구 연맹'을 붙여서 쓰면 '한국여자농구연맹'이 된다.

더 알아보기

- **두음 법칙의 적용**

두음 법칙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 '연도'와 '년도'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年度) 「명사」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 또는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 ¶ 졸업 연도/제작 연도.

년도(年度) 「의존명사」((해를 뜻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 ¶ 1985년도 출생자/1970년도 졸업식/1990년도 예산안.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치열(齒列)	치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전율(戰慄)	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이 조항에서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자어 '랴, 려, 례, 료, 류, 리'를 포함하는 음절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야, 여, 예,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양질(良質)　　역량(力量)　　예법(禮法)

용왕(龍王)　　유랑(流浪)　　이치(理致)

의존 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앞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객차(客車) 오십 량(輛)　　2푼 5리(厘)

[붙임 1]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랴, 려, 례, 료, 류, 리'로 적는다. '쌍룡(雙龍)'은 명사 '쌍(쌍가락지, 쌍가마)'과 '용'이 결합한 말로 보아 '쌍용'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와룡(臥龍), 수룡(水龍), 잠룡(潛龍)'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아 '쌍룡'으로 적는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列, 烈, 裂, 劣), 률(律, 率, 栗, 慄)'은 '나열[나열], 비율[비:율], 선열[서녈], 운율[우:뉼]' 등에서와 같이 [열], [율]로 소리 나므로 소리대로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비열(卑劣)	균열(龜裂)	분열(分列)
서열(序列)	우열(優劣)	분열(分裂)	선열(先烈)
의열(義烈)	치열(熾烈)	전열(前列)	천열(賤劣)
규율(規律)	비율(比率)	백분율(百分率)	선율(旋律)
외율(煨栗)	이율(利率)	운율(韻律)	전율(戰慄)
자율(自律)	조율(棗栗)	환율(換率)	

'率'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이자율(利子率)[이:자율], 회전율(回轉率)[회전뉼/훼전뉼]'처럼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능률(能率)[능뉼], 합격률(合格率)[합껵뉼]'처럼 '률'로 적는다. 외래어에서도 동일하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는다.

서비스-율(service率)	시엔-율(CN率)
슛-률(shoot率)	영-률(Young率)

[붙임 2] 널리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 성명의 발음이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립, 최린'과 같이 적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신입'과 '신립', '최인'과 '최린'을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이와 같이 처리한 역사적 인물은 다음과 같다.

신입/신립(申砬)	최인/최린(崔麟)	채윤/채륜(蔡倫)
하윤/하륜(河崙)	김입/김립(金笠)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은 ‘국련’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 ‘국제’의 ‘국’과 ‘연합’의 ‘연’을 따서 만든 말인데, ‘연’ 자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련’으로 쓰는 것이다.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를 ‘한시련’으로 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붙임 4] 한글 맞춤법 제10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또한 두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몰-이해(沒理解)	과-인산(過燐酸)	가-영수(假領收)
등-용문(登龍門)	불-이행(不履行)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	선-이자(先利子)	무실-역행(務實力行)
청-요리(淸料理)	수학-여행(修學旅行)	낙화-유수(落花流水)

한편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한 한자어는 독립적인 한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가시-연(蓮)	구름-양(量)
허파숨-양(量)	먹이-양(量)
벡터(vector)-양(量)	에너지(energy)-양(量)

‘量’이 고유어 ‘구름’과 결합하면 ‘구름양’이 되는 것은 ‘양’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자와 결합하면 ‘운량(雲量)’처럼 ‘량’으로 적는다. ‘이슬양’과 ‘노량(露量)’도 마찬가지 이유로 각각 ‘양’과 ‘량’으로 적는다.

[붙임 5] 수를 나타내는 ‘육’은 ‘십육(十六), 육육삼십육(6×6=36)’처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렇지만 ‘오륙도(五六島), 사륙판(四六判)’ 등은 ‘오’와 ‘육’, ‘사’와 ‘육’이 독립적인 단어로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서울여관(←서울 여관), 국제수영연맹(←국제 수영 연맹)’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라, 래, 로, 뢰, 루, 르’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를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관(樂觀)	내년(來年)	노년(老年)
뇌우(雷雨)	누수(漏水)	능사(綾紗)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에 쓰이는 ‘릉(陵)’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에 쓰이는 ‘란(欄)’은 한 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한자어 뒤에 결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릉’과 ‘란’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강릉(江陵)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소식란(消息欄)	투고란(投稿欄)

다만,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가시-연(蓮), 구름-양(量)’과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반-나체(半裸體)	사상-누각(沙上樓閣)	실-낙원(失樂園)
중-노인(中老人)	육체-노동(肉體勞動)	부화-뇌동(附和雷同)

한편 ‘표고(標高)가 높고 한랭한 곳’이란 뜻의 ‘高冷地’는 ‘고냉지’가 아닌 ‘고랭지’로 적는다. 발음이 [고랭지]이고 ‘고랭-지’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딱딱	딱닥	꼿꼿하다	꼿곳하다
쌕쌕	쌕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눙눅하다
똑딱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쓱싹쓱싹	쓱삭쓱삭	싹싹하다	싹삭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쌉쌀하다	쌉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씁쓸하다	씁슬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짭짤하다	짭잘하다

'딱딱, 쌕쌕' 등은 '딱, 쌕'의 음절이 반복되는 의성어이므로 반복되는 음절을 동일하게 적는다. '딱딱'을 '딱닥'으로 적어도 소리는 동일하지만 '딱딱'이라고 적으면 '딱'이라는 음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언어 직관에 더 맞는다. '씁쓸하다, 똑딱똑딱, 쓱싹쓱싹' 등도 각각 '씁, 쓸', '똑, 딱', '쓱, 싹'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딱딱, 쌕쌕' 등과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 그 반복되는 부분을 같은 글자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조항에서는 고유어뿐 아니라 한자어도 다루고 있다. 한자어는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유어와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冷'은 '냉수(冷水), 급랭(急冷)'과 같이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표기가 나타나므로 '冷冷'은 '냉랭'과 같이 적어야 한다.

낭랑(朗朗)하다　　냉랭(冷冷)하다　　녹록(碌碌)하다　　늠름(凜凜)하다
연년생(年年生)　　염념불망(念念不忘)　　역력(歷歷)하다　　인린(燐燐)하다

이에 따르면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발음이 '[여:년불망], [유:유상종], [누:누이]'이고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구조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연(戀戀)하다　　요요무문(寥寥無聞)　　요요(寥寥)하다